

# 독일 IDZ 워크숍 해외과정 보고서

2007. 10. 3

리엔파트너스 이종락

## 목 차

1. 서론
2. 본론
  - 2.1. 베를린 문화체험
  - 2.2. 디자인트랜드
  - 2.3.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 2.4. 타이포그래피 및 사인(Sign)
3. 결론

## 1. 서론

먼저 독일은 그래픽디자인의 본고장이다 교육의 원류인 바우하우스가 창설되었으며, 누구나 디자인적 가치를 높게 인정하는 나라이다.

베를린에서의 9일이라는 기간 동안 세계에서 디자인적 우수성이 뛰어난 것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체험적 교육이 중요한 것은 그 나라 그 제품의 디자인이 나오게 된 역사적 문화적 이해에서 비롯되어야 설득력을 더 한다고 본다.

이번 해외선진워크숍을 통해 체험한 교육의 전반적인 개략과 독일의 문화적 체험을 통해 느낀 점에 대하여 디자이너의 시각에서 간략하게 이야기 할 것이며, 또한 향후 우리나라의 디자인 발전방향 및 개인적 디자인 실무에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되었음 한다.

## 2. 본론

### 2.1. 베를린 문화체험

누구에게나 달고 다니는 꼬리표 같은 게 있다면 독일은 우리나라와 더불어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나라이다. 그러한 점에서 향후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변할지도 궁금하게 다가왔고 바라보는 관점이 새롭게 느껴지는 나라였다.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그 역사적 배경과 상처였던 베를린 장벽과 브란덴브르크문, 도심의 지하 병커를 이제는 문화적 관광용으로 흥행 거리로 만들어 놓았던 것을 보았다. 단지 장벽과 흉물이 아닌 예술적, 디자인적으로 명물의 하나로 승화시킨 것이다. 요즘 많이들 떠오르는 스토리텔링으로 볼 때 담벼락과 병커를 애깃거리로 만들어 상품화 했다고나 할까 베를린

가면 무너진 장벽 앞에 서 보지 못하고 돌아오면 뭔가 빠트린 것처럼 필수 조건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중히 여기는 박물관과 미술관은 매우 웅장하고 고귀하게 보존되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예술적 디자인적 마인드를 대변해 준다고 볼 때, 그러한 디자인적 사고를 가지고 있음이 거리의 건축이나 환경 사인(SIGN)과 제품에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며, 디자인적으로 앞서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사인(SIGN)에 대한 관심으로 좀 더 얘기하자면 첫째로 신호등의 아이콘 기호 하나라도 디자인적 흥밋거리로 만들어 눈을 즐겁게 하고 사고를 새롭게 하게 만들었고 그것들이 하나의 상품으로 인기리에 팔리고 있다. 이는 모든 것에 디자인적 가치를 부여하면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입증이다. 다들 그렇게 쓰니깐 그대로 한다기보다 창조적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했다.



또한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칼라들의 조합도 뛰어났다 자기들의 제품과 브랜드를 시각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었고 그러한 칼라의 다양화속에서

도 번잡함이 없었다. 간결 그 자체였으며 화려했다. 칼라는 그 선정과 적용이 매우 어려운데도 도시전체의 분위기와 잘 맞아떨어져 식상한 거리를 돋보이게 하는 것 같았다. 이것들이 하나의 전체적문화로 그들의 견해가 높게 바라본다고 해야 할 것이며 여러 가지의 여건 속에서 어우러진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도 도시미관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들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적인 도용이 아닌 우리미관과 전통에 잘 어울리는 그 무언가를 만든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것으로 거듭 태어나야할 것이라고 본다.



## 2.2. 디자인트렌드

첫 번째로 트렌드와 디자인의 혁신에 대해 교육을 시작하였다. TrendOne의 Nils Muller의 수업은 한마디로 색다른 경험이었다. 어디에서 그렇게 자부심과 거만할 정도의 자신만만함이 나올까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미래의 트렌드를 예견하면서, 그것은 예견이 아니고 확신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변화되어 갈 것이니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메시지.... 그런 말을 듣고

개인이나 기업들은 그들의 트렌드를 공부하고 사들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나 또한 디자인을 설명하고 피력할 때 자신 있고 확신에 찬 설득력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강의는 대부분 지구상 최신 제품들의 특성과 혁신제품들을 보여주며 이러한 디자인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를 보여 주었다. 최신 아이폰에서 터치스크린등 소재와 첨단기술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적 아이디어이며 실습을 통한 전개방법을 직접 경험하게 했고 팀을 나누어 아이디어를 전개 발표하는 과정에서 우리



들의 숨은 실력도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고 이런 것들이 한사람의 리더에 의해 거침없이 발휘된다는 것을 또한 실감했다. 트렌드는 가장 앞선 선 과제이며 다방면으로 정보를 습득해야 하고, 새로운 트렌드에 다가가기위해 창조적 사고가 필요함을 알았다.

### 2.3.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분야로 브랜드의 이론적 정립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Meta Design의 방문은 디자인회사를 경영하는 차원에서나 Project을 진행하는 방법적인 시각에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브랜드디자인을 개발하기는 누구나 비슷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설득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며 매우 중요한 과정임을 느끼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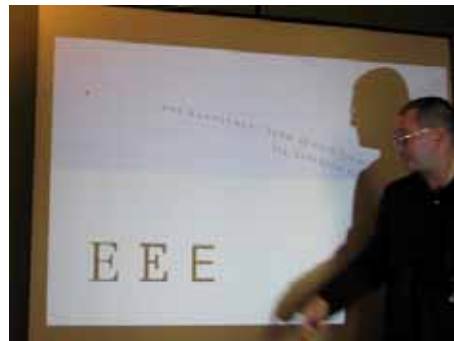
프리젠테이션 과정에서 케익이나 과일에 브랜드 디자인로고를 실제 적용해 보여주며 사실적 디자인느낌을 보는 사람에게 체험하게 하여 설득한다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브랜드의 적용에서도 일관성 있는 그래픽 아이덴티티의 적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모든 시각물과 차량 및 제품에도 일관되게 적용된 모습들을 보여 주었다. 그리하여 브랜드의 힘이 생겨나고 브랜드의 이미지가 동일하게 전달됨을 말하는 것이었다.



## 2.4. 타이포그래피 및 사인(Sign)

모든 시각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필수 분야가 타이포그래피가 아닌가 생각한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또한 가장 민감하며 어려운 과제라고 늘 생각해 왔다. 그 이유는 뚜렷한 공식이 없는 것도 그러하겠지만 또한 필수적인 룰이 있다고 본다. 그것을 잘 설명해 준 Wolfgang Beinert는 자기의 작업물들을 최상의 퀄리티로 만들어 고객에게 높은 만족과 희소성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즉 아무나 근접할 수 없는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며 독보적 존재로 부상한 것이다. 여기에는 디자인의 가치가 얼마나 높이 평가 받을 수 있는 가는 자기의 위치를 어디에 두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었다. 다른 디자이너들 보다 10배 더 비용을 받는다는 그는 그 만큼의

열정과 노력을 기울인다고 했다. 하나의 디자인장인정신이요 타이포의 개척자라 할 것이다. 컴퓨터에서 쉽게 작업 할 수 있는 타이포를 쓰기보다 전통적인 오래된 감성적 서체를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는 그는 진정한 디자인의 창조자이자 개척자라 할 것이다. 우리가 임해야할 디자인적 사고와 정신세계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훌륭한 가르침 이었던 같다.



또한 여러 가지 도시곳곳의 타이포를 적용한 사인(Sign)물을 관찰하였는데 독일의 교통표지판에 사용된 딘 서체 등은 영국 런던의 지하철에 사용하는 뉴 존스톤 서체와 함께 서체의 시각적 속성이 국가의 아이덴티티까지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공공디자인의 타이포그래피라는 국가를 대변하는 하나의 시각적 아이덴티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3. 결론

시각디자이너로 실무에서 10여년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소기업을 상대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작업은 학부에서 또는 국내의 교육 및 선배디자이너들의 작업방향을 습득, 체험하거나 정보를 통하여 얻은 지식이라 하겠다. 그러한 과정이 과연 올바른 디자인지식의 함양 이었는가에 대한 판단은 쉽게 할 수 없었다. 이번 해외선진기관 디자인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자신의 디자인적 개념을 되짚어 볼 수 있었고, 디자인 작업방법에 있어서도 사고와 마음가짐을 달리하여 접근 바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교육은 문화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현장체험이 선진디자인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끼게 하였다.

지금 세계시장의 흐름을 볼 때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제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없다. 앞으로 우리의 생산적 가치는 디자인적 지식산업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현실에서 디자인의 중요성과 디자이너의 몫은 점점 커진다고 말할 수 있다.

다양한 사업들 중에 산자부와 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 인재 및 다양한 인프라 구축은 매우 긍정적 측면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다. 끝으로 실무에서 힘써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